

2018년 9월 15일 "(참된 공동체 7)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빌 3:12-14)

<도입>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두셨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길을 배워 희망을 얻게 되었다면 인생의 선물을 얻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무한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선물을 주신 후에 더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삶과 공동체 안에 하늘의 선물들을 채우는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주시는 상

어떤 목적을 위해 노력한 행위에 대해 칭찬과 인정을 담은 상을 받으면 누구나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능동적으로 다음 일에 도전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고서 어떤 소명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아래와 같은 핵심가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골 1:28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동반되는 일을 목회 또는 목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 흠 없는 자녀가 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길을 가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14 절). '자녀와 사도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안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엄청난 축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마지막에 한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도 약속된 상을 향해 정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36-37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시고 상상보다 훨씬 더 큰 보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2] 상의 내용

예수님 믿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상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와 부요한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상이 됩니다.

계 22:1- 사도 요한이 천상 교회를 바라보니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와 도시 가운데를 흐릅니다.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내고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데 쓰인다고 말합니다.

열매는 식물의 가치가 최고일 때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약속하고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나뭇잎은 치료하는데 쓰입니다. 나와 공동체와 민족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열리는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육의 열매를 맛보고, 섬김을 통해 치유가 넘치게 하는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구조와 활동들을 통하여 부르심의 상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뒷면 그림 참고)

[3] 상의 길

교회는 상 받는 길을 몸소 실천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상을 소개하고 함께 따르도록 격려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으로 채우는데 있습니다. 이 상은 내가 받으면 상대가 유익을 얻고, 또 그 상대가 유익을 얻어서 상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하시고(마 5:12),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1). 주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상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삶은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성품과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성도의 의로운 길에 대한 점검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고전 13 장, 롬 12-16 장 참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요소는(골 1:28)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보고 얻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따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며 부르심의 부요한 상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성경에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상은 우리 삶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갖습니까?
2.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상의 길에 대해 어떤 삶이 요구되는지 묵상하며 결단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